불사 대신 택한 난치병 환자 후원

연꽃 108사찰 순례단, 회향 성금 4480만원 기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관세음보살상 불사를 목표로 전국 사찰 108곳을 순례한 '연꽃 길 따라 함께 하는 108사찰 순례단'이 불사 대신 생명 살리기에 동참했다. 생명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3년 가까이 마련한 불사금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기탁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구랍 22일 동의대 내 안국사에서 '연꽃 길 따라 함께하는 108사찰 순례단'의 난치병 환자 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는 순례에 참여한 불자 130여 명이 동참했다.

순례의 마지막 회향처로 안국사를 찾은 불자들은 법당에 모여 참배하고 3년 동안 이어온 기도가 바르게 회향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손을 모았다. 아울러 서로 도반들을 격려하면서 그동안 모은 성금이 잘 전달 돼 병마로 고통 받는 환우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이 자리서 순례단은 회비, 순례 경비 및 보시금으로 모은 성금 448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순례단은 부산 운수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관세음보살 불사를 위해 232명이 의기투합했다. 2017년 2월 19일 삼보 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시작으로 순례를 시작했으며, 이후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사찰을 방문하

3년간 108개 사찰 방문한 원력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성금으로 기탁… "순례가 수행"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도 동참

고 108배 참배와 108 염주만들기 등으로 기도를 이어갔다. 3년간의 일정을 진행하던 순례단은 회향을 맞아 참된 불사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순례단은 고민 끝에 자비행으로 회향할 것을 결정, 난치병 환우를 위해 불사금을 쓰기로 했다. 이날 108사찰 순례단은 장기기증회원으로 12명이 등록했으며 후원회원에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연꽃 길 따라 함께하는 108사찰 순례단'은 관세음보살상 불사 대신 난치병 환자 지원을 회향처로 선택, 4480만원의 성금을 부산생명나눔에 전달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그동안 매달 환자를 선정해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성금은 부산본부에서 처음 받는다"며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안타까웠다. 성금을 잘 전달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정숙 단장은 "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이뤘는가'라는 화두를 받고 관세음보살상 불사를 시작했는데 매달 다니는 순례길이 어떨 땐 고행의 길로 서로를 성장하게 해줬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함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운동과 의료복지운동을 실천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각막, 신장, 골수 등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이어 주는 결연사업과 헌혈사업, 환자 지원사업 등 펼치고 있다.

부산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취임

고불식서 "신도조직 활성화 노력" 다짐

천년고찰 장안사가 주지 고불식을 봉행했다. 새롭게 취임한 주지 무관 스님은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 장안사(주지 무관)는 구랍 26일 경내 설법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 주지 무관 스님은 무엇보다 포교활동을 강조하며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일요법회를 새롭게 열고, 신행생활을 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지 무관 스님은 1985년 8월 인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범어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에서 사집과 중



강을 지내고 마곡사 수선안거 이래 제방선원서 11안거를 성만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조계종 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안 쌍봉사, 어르신 섬김봉사잔치

진안 봉사센터와 향후 2년간 봉사잔치 약정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제2회 진안군 어르신 섬김봉사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구랍 23일 진안문화원 마이홀에서 열린 잔치에는 진안군 관내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100여 명이 초청됐다.

이날 진안 쌍봉사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향후 2년간 어르신 섬김봉사잔치에 대한 후원을 약정했다. 또 쌍봉사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밥상' '사랑의 백미나눔' '사랑의 집 신축후원'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쌍봉사 섬



김봉사단과 함께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정계율 불교조계종 여주 본산서 송년법회

한 해 공로자 표창 수여식도

청정계율 불교조계종(종정 혜인)은 구랍 24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혜인 스님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법광 스님, 각 종무원장 및 종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혜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7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부처님 모두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행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청정하게 사는 것이 곧 불교"라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청정했는가, 부처님 말씀과 함께 했는가 등을 돌아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법문했다.

법회에서는 한 해 동안 종단발전을 위해 공적을 쌓은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포교대상은 금산 · 법철 · 율조 · 법성 스님이, 공로대상은 법산 · 지견 스님 · 김준자 신도회장이, 봉사상은 이순자 · 이강익 · 김진숙 · 정복순 씨가 받았다. 윤호섭 기자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불국토 발원

부산 포교사단, 자비 연탄 · 이불 개금3동 철로변 마을 직접 전달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우리들의 복밭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골목에 연이어 줄을 선 포교사들이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바람은 차가워도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선 포교사들의 함박웃음이 열악했던 길목을 채우고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바꾸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이 추운 겨울 연탄나눔으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온정을 전달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구랍 21일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에서 자비의 연탄나눔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동참했다.

부산 포교사단은 개금 철로변 마을에 위치한 20세대에 연탄 1000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아울러 겨울용 이불을 함께 지원했다. 이 자리에는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을 비롯해 포교사 200여 명과 류강렬 개금복지관장 및 직원들이 동참했다.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에서 연탄과 겨울 이불을 나눈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정분남 단장은 "이웃에게 따듯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행사에 동참해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이곳은 저희에겐 복밭이다. 복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포교사단은 100일 동안 금강경 독송 수행을 진행하고, 기도동참금을 십시일반 모아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 30포대를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동지법회

1200인분 팥죽 달서구 주민들과 함께 나눠

대구 달서구 와룡산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구랍 22일 경내 큰법당에서 동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법회는 천수경 봉독, 권공, 육법공양, 공양게,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과 참회진언 속에 연비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2020 경자년부터 활동할 새로운 신도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로패, 보현패, 문수패 등을 27명에게 전달했다.

학장 도경 스님은 "어둠을 밝히는 동지의 의미에 따라 불행을 경사로 만들어가자. 초발심을 잊지 말고 주위 사람을 참 벗으로 삼아 허물을 말하지 않으



며, 항상 청정한 불자의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같은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동지법회에 앞서 구랍 18일 달서구 신당복지관에서 1200인분의 팥죽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행복의 길, 신뇨엔

The ways to the happiness, Shinnyo-en

신뇨엔(真如苑 진여원)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수행하는
봉사와 이타행을 실천하는 사원입니다.

근하신년

真如苑 苑主 伊藤真聰

南無 女い真 Shinsoen

신뇨엔(真如苑 진여원)은
부처님의 깨달음,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찾아내고 싶고,
그리고 각자에게 그러한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이타를 위해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원주(苑主) 미국 USC 강의 中

Shinnyo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0개국 42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051)892-6998